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08

AUGUST 2015
vol.08
MONTHLY MAGAZINE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함께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

표지 작가소개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해를 품은 달〉 〈타짜〉 〈국순당 우국생, 백세주〉 〈교촌치킨B〉
현.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문화예술학과 초빙교수
사. 한국 미술 협회 이사, 한국 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과수경은님의
혼자의 발견 중에서
이상현  작다



하나은행의 소중한 고객님께

하나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은행으로의 미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되면 자산규모 1위의 국내 최대 은행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산관리의 명가 하나은행과 국내은행 최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금융의
강자 외환은행이 만나 만들어 낼 시너지는 벌써부터 시장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통합의 미래는 단순히 규모의 일등이 아닌 글로벌 일류 은행입니다.
당당히 세계적인 은행과 맞설 수 있는 일류은행으로 도약하여
고객님께 대한민국에 이런 은행이 있어 행복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의 오늘은 모두 고객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통합은행으로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신뢰 받고 앞서가는 일류 금융서비스로 고객님과 가족의 행복을 키워 드리는
금융역사에 한 획을 긋는 행복금융을 열어가겠습니다.

하나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 드리며
통합은행으로 만들어갈 하나금융그룹의 미래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은행장 김병호



외환은행의 소중한 고객님께

외환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통합은행으로의 미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통합되면 자산규모 1위의 국내 최대 은행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국내은행 최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금융의 강자 외환은행과 자산관리의
명가 하나은행이 만나 만들어 낼 시너지는 벌써부터 시장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통합은행의 미래는 단순히 규모의 일등이 아닌 글로벌 일류 은행입니다.
당당히 세계적인 은행과 맞설 수 있는 일류은행으로 도약하여
고객님께 대한민국에 이런 은행이 있어 행복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외환은행의 오늘은 모두 고객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통합은행으로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신뢰 받고 앞서가는 일류 금융서비스로 금융역사에 한 획을 긋는 행복금융을 열어
고객님과 가족의 행복을 키워 드리겠습니다.

외환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 드리며
통합은행이 만들어갈 하나금융그룹의 미래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은행장 김민희



혼자만의 빈둥거림
당신은
혼자여도
행복한가?



Are you
happy
even alone?

혼자만의
시간이
불안한
사람들

'깜빡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내가 어제 무슨 일을 했었지?'라는 뜻밖의 기억상실(?). 바로 건망증이다. 건망증의 사전적인 정의는 '기억력에 장애가 생겨 금방 잊어버리거나, 드문드문 기억하거나 또는 어떤 일정한 시기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이러한 건망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현대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다. 건망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뇌의 과부하 때문이다. 뇌는 사용한 만큼 적절한 휴식이 주어져야 한다.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면 마치 컴퓨터가 다운되듯 과부하 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뇌를 한시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뇌가 심심해하거나 휴식할 틈을 주지 않는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바로 인터넷 정보를 탐색한다든지 TV, 컴퓨터 등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를 보기에 바쁘다. 하루 종일 정보의 홍수 속에 노출되니 뇌는 쉴 틈이 없다.

현대인들이 한시라도 가만히 있는 틈을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 때문일 것이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불안이 감정의 기저에 존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의 의미 없는 포털 뉴스를 검색하고 댓글을 확인하며, SNS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끊임 없이 드러내며 사람들과의 소통에 목말라 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한다는 것,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침묵의 시간을 즐기는 것, 인터넷이나 TV, 컴퓨터 등 세상과의 통로가 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그저 가만히 있는 시간을 즐긴다는 것, 속된 말로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쩌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위한 첫 발걸음이 아닐까.



도대체 사색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섬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별 일을 하지 않는다. 혼자서 하늘을 바라본다거나 마땅히 고기가 잡히지 않아도 바닷가에서 낚싯대를 드리운다. 밀짚모자를 쓴 채 무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제방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 섬에 여행을 온 여자는 묻는다. “이 섬에서 갈 만한 곳은 어디인가요?” 사람들은 여자의 질문이 의아하다.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는데요…”

여자는 다시 묻는다. “그럼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사색!” 일본의 힐링 영화로 꼽히는 ‘메가네(안경)’의 한 장면이다. 여자는 사색을 하기 위해 종일 바닷가에 앉아도 보고 산책도 하지만 도통 사색이 되지 않는다. 여자는 다시 묻는다. “도대체 사색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어쩌면 그녀의 질문은 현대인들의 공통된 질문인지도 모른다. 혼자 있을 때만이 가능한 사색은 백여 년 전에 살던 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사색을 위한 시간이 주어져도 무엇을 사색해야 할지 모르는 현대인들은 사색을 위한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몇 년 간 서점가에서 돌풍을 일으킨 각종 자기계발서는 시간을 분초로 쪼개어 최대한 효율성 있게 사용하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자기계발서는 식사 시간마저도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설파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자유’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를 스스로 박탈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고독을 스스로 만들고 즐긴다는 것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다. 아침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책이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도 있듯 아침을 일찍 맞이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적인 아침이 아닌 정적인 아침을 맞이해보는 것은 어떨까. 혼자만의 아침 산책을 나가보거나, 떠오르는 해를 보며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행복한 상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얼마간의 시간이 되든 나만의 여유 시간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초조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마음속에 화가 가득하거나 분노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행동하려 할 때 나 자신과 마주하며

자신의 마음을 제3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냉정을 되찾을 수 있다.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를 쓴 사회학자 노명우는 현대인의 자아를 구성하는 두 가지 ‘밀도’를 제시한다. 역할밀도와 자기밀도다. 역할밀도는 일상에서의 의무와 책임 등을 의미하고, 자기밀도는 자유로운 개별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책에서는 현대사회는 개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역할밀도를 요구한 나머지 자기밀도를 확보할 만한 여유가 없음을 지적하며 고독의 필요성을 말한다.

그가 말하는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른 의미다. 외로움이 역할밀도에 눌러 개인에게 찾아온 일종의 소외감이라면, 고독은 소외감을 스스로 선택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홀로됨이다. 그는 자기밀도를 되찾기 위해서는 고독을 스스로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복잡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고독과 사색을 위한 ‘빈둥거림’은 어쩌면 행복을 되찾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지도 모른다.

괜찮다. 혼자만의 빈둥거림 쫓...

가장 편한 복장과 가장 편한 신발을 신고 천천히 동네를 산책하며 빈둥거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며 자신의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는 것, 방바닥에 누워 벽지의 모양을 찬찬히 훑어보거나,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향기 좋은 커피 한 잔을 음미하는 것 등 여유를 찾는다면 그리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자. 그저 혼자만의 시간 동안 머리를 비워내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단상들을 즐기며, 꼬리를 무는 생각의 생각을 따라가 보자. 괜찮지 않겠는가. 가끔 빈둥거림 가득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바로 지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08월호 vol.08
MONTHLY MAGAZINE, AUGUST 2015



10 행복을 주는 사람 | 방송인 황인용 씨

라디오와 TV를 넘나들며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들었던 방송인 황인용 씨. 고희(古稀)를 훌쩍 넘겼지만 아직도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그는 파주 헤이리 음악 공간 '카메라타'에서 10여년을 넘게 음악에 푹 빠져 살고 있다. 그런 그가 그동안 살아 온 인생을 추억하며, '흐르는 강물처럼 살자'고 후배들에게 솔직한 담백한 인생론에 대해 얘기했다.



20 지식프라자 | 채무도 증여하면 절세되나요?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전에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부채를 안고 증여하면 적용 세율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에 항상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상황에 부담부증여가 유리한지 살펴보자.



30 연금포커스 |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국내 퇴직연금시장이 도입 10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양적 성장에 비해 안전자산 중심의 투자 방식으로 운용수익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최근 통과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시사점을 살펴본다.



36 경제이슈 | IMF의 변신은 무죄?

최근 IMF가 변화하고 있다. 선진국만의 이해가 아닌 신흥국의 이해를 함께 대변하는 '세계의 중앙은행'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IMF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신선한(?)보고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OPENING

- 04 행복을 위한 질문
혼자만의 빈둥거림 '당신은 혼자여도 행복한가?'

INTERVIEW

- 10 행복을 주는 사람
인생은 흐르는 강물처럼

INFO GRAPHY

- 14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행복미래설계

- 16 H씨의 행복설계
늦은 퇴직으로 충분한 미래설계 가능
- 20 지식 플라자
채무도 증여하면 절세되나요?
고령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 24 Do! Dream
나만의 삶을 쓰다
'자서전 쓰기'가 주는 행복
- 26 Anti aging
마음 가는대로, 아트테라피
- 28 Alone, together
내가 꿈꾸는 텃밭

연금이슈포커스

- 30 연금 포커스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경제 TREND

- 36 경제 이슈
IMF의 변신은 무죄?
- 40 부동산이슈
그린벨트 규제완화, 의미와 영향은

GLOBAL

- 44 지구인 이야기
모험, 온라인 쇼핑 즐기는 오스트리아 실버세대

FUTURE

- 46 은퇴, 버킷리스트
마라톤, '러너스하이'의 쾌감 맛보기!



방송인 황인용 씨

인생은 흐르는 강물처럼

라디오와 TV를 넘나들며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들었던 방송인 황인용 씨. 고희(古稀)를 훌쩍 넘겼지만 아직도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그는 파주 헤이리 음악 공간 '카메라타'에서 10여년을 넘게 음악에 푹 빠져 살고 있다. 그런 그가 그동안 살아 온 인생을 추억하며, '흐르는 강물처럼 살자'고 후배들에게 솔직한 담백한 인생론에 대해 얘기했다.

70~80년대, 라디오를 통해 음악을 듣고, 정보도 얻고, 삶도 이야기하며 희망과 위로를 받던 그때 그 시절.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DJ이자 방송인 황인용 씨.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에 웃고, 울면서 삶을 이야기했다. 지금은 그가 마련한 음악공간에서 클래식 음악에 귀 기울이며 삶의 회로에락을 나누고 있다. 파주 헤이리의 음악감상실 '카메라타(Camerata)'에서 10여년의 시간을 음악과 사람들과 함께해오고 있는 그를 만났다.

음악으로 교감하는 카메라타

육중한 나무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공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곳이 어떤 곳인지 말해준다. 우선 독일산 중후한 멋의 거대한 스피커에 압도된다. 각각 저음, 중음, 고음으로 합주하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클래식 선율은 나도 모르게 자리앉아 조용히 음악에 빠져들게 만드는 신비한 마력이 있다. 인상적인 높은 천장은 클래식의 음을 한층 깊이 전해준다. 천장 한 칸으로 난 창문은 햇살을 살며시 머금고 있고, 책상 위에는 작은 돌에 매단 몽땅 연필과 작은 연필깎이가 놓여 있다. 제대로 듣는 클래식의 감동은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다. 음악에 감동해 넋 놓고 자리에 앉아있 다 보면 처음 이곳에 발을 디딜 때 내 머리 속을 짝 채웠던 상념은 사라진 지 오래다. 때론 가슴 벅찬 환희와 때론 몽클한 흐느낌만이 함께 할 뿐이다. 자리 곳곳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감동과 흥분으로 음악에 젖어있다. 마치 16세기 이탈리아 예술인들이 지적교감을 나눴던 그 '카메라타'를 연상케 한다. 이렇게 카메라타에 가면 진공관 앰프, 1만여장의 LP판, 턴테이블, 클래식과 함께 차 한 잔, 그리고 방송인 황인용 씨를 만날 수 있다.

즐거움, 피곤함, 고달픔이 공존하는 것이 인생

카메라타에서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는 그의 일상은 편안한 노년을 계획하는 이들이 꿈꾸는 로망 같을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에겐 행복만이 있을 줄 알았다.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음악을 들으면서 상념에 잠길 수도 있고,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슬픔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해도 현실은 현실이에요. 현실에는 즐거움 속에 피곤함, 귀찮음, 고달픔이 섞여 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이로 하여금 생각에 빠뜨리는 힘이 있다. 기자는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쩌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보내는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와의 인터뷰는 유리관 속에서 간헐만 있던 환상을 깨어 부수고, 녹녹치 않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깊은 잠을 자다가 깨어난 기분일까. 그런 묘한 번뜩임 같은 것이다.

행복을 몰라도,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이란 어려운 것이예요. 행복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어요. 행복은 오히려 행복을 생각하지 않을 때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행복을 전혀 모를 때 그때가 바로 행복한 순간일 수 있어요.” 그의 행복론은 그가 제일 좋아한다는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서 맥클레인(톰스 케릿)의 대사, ‘그사람에 대해 완전한 이해가 없어도 우리는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행복이 무엇인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도, 지금 우린 행복한 것일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묵묵히, 성실하게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삶을 살아 낸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행복에 대해 경솔히 정의내리고 싶었던 젊은이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녹녹치 않을 현실의 삶에 대해 좀 더 성숙하게 접근해야 함을 깨닫게 했다.

쉽과 힐링의 공간, 카메라타

일주일에 몇 건의 방송을 제외하고 그는 주로 카메라타에 머무른다. 스피커들 오른편으로 DJ박스가 있다. 그 안에 육중한 앰프와 턴테이블, LP 1만5000장이 빼곡하게 들어차있다. 이곳에서 그는 카메라타의 음향기기 모두를 직접 조작하고, 음악도 직접 선곡한다.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게 라디오 DJ할 때부터 생긴 직업병 같은 건데, 이 음악 다음에는 어떤 음악을 틀어야 하나, 그런 걸 생각해야 하죠.”

카메라타. 그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곳이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공간을 계획한 것일까. 궁금해졌다. 돌아 온 답변은 예상을 뒤엎는다.

“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못돼요. 아주 충동적이죠. 그저 음악을 좋아하고 오디오를 좋아해 시작했어요. 다만 옛날부터 마음속으로 바라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빈곤한 생활 가운데에도 음악다방에서 음악을 즐길 정도로 좋아했죠. 음악

“ 제 삶에 일어난 모든 우연에게 감사하죠.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했지만, 인생에 운이 많이 따라주었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존재하니까요.”



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디오도 좋아하죠. 음악과 오디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음악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음악과 오디오를 좋아했고,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카메라타를 설계했다고 말한다.

카메라타를 준비할 당시 몹시 지친상태였다. “침이 필요했어요. 그때 마침 고향이기도 한 파주에 헤이리 예술인 마을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음악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주 충동적인 설계를 시작했죠.” 처음엔 작은 공간으로 시작했는데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첨부되었고,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규모가 커졌단다.

“처음엔 문 열고 싶을 때만 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곳이 약간 공공성을 띠게 되면서 맘대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됐어요. 일반인 공개보다는 오디오 동아리,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반 대중을 위한 공간이 되었어요.”

카메라타는 지금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음악공간이다. 많은 이들이 오고가는 덕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되기도 한다.

그는 “10여년을 넘게 유지해오면서 마음의 힐링 공간이라고 말해주는 분, 잘 쉬었다 간다고 진심 어린 메로를 남겨주는 분들 덕에 위안을 받기도 한다”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쉽과 힐링이 필요했던 그가 만들어 낸 이 공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쉽과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누구나 삶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생각을 가다듬고 싶은 때가 있다. 바로 그때 떠올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카메라타다.

인연과 운명으로 이어진 인생

“인생은 운이라는 것, 그리고 우연이라는 것이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 덕분에 서울에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아나운서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카메라타까지 저에게 주어진 인연과 우연들이 기회가 되었고 삶이 되었죠.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그에겐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연과 인연이 있다. 우선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담임선생님과 인연이다. 집안 형편이 힘들었던 그를 10개월 동안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 덕분에 서울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선생님과 만나지 못했다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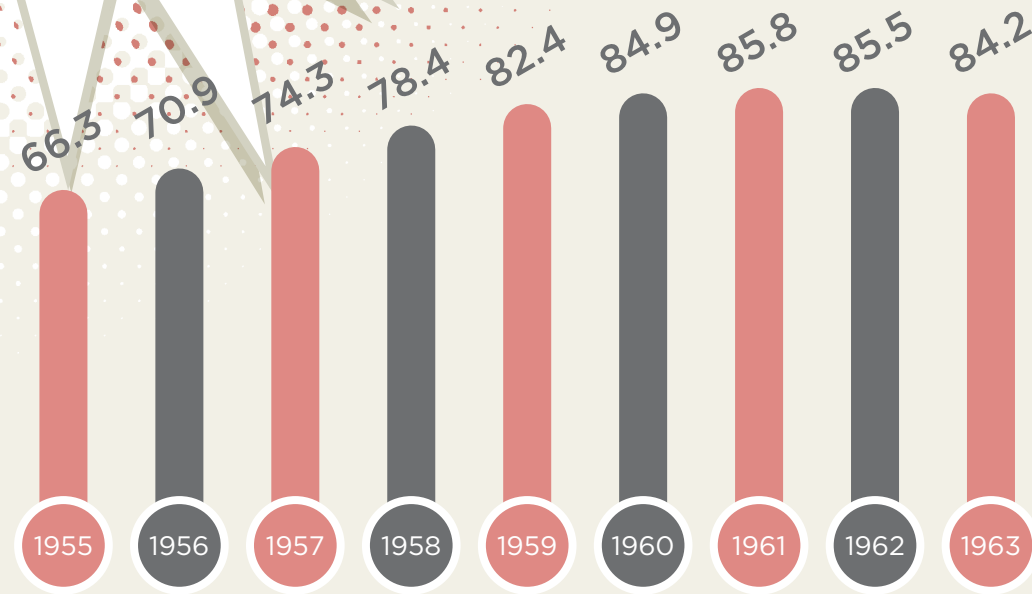
그 다음은 아나운서가 된 것이다. 그때도 운명적인 만남이 크게 작용했다. 아나운서 원서를 들고 방송국을 찾아갔지만 집안의 중손인 그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지원이 힘들게 됐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를 옆에 있던 다른 접수관이 붙들며 기회를 줬다고 한다. “어이 젊은이! 지원이나 한번 해보게!”라며 그의 원서를 받아줬고, 아나운서로서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제 삶에 일어난 모든 우연에게 감사하죠.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했지만, 인생에 운이 많이 따라줬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존재하니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특별한 것보다는 이제 가족과 여행을 다녔으면 한다는 그에게 잘 살아온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를 부탁했다. “흐르는 강물처럼 살자!”며 소탕하고 정감어린 웃음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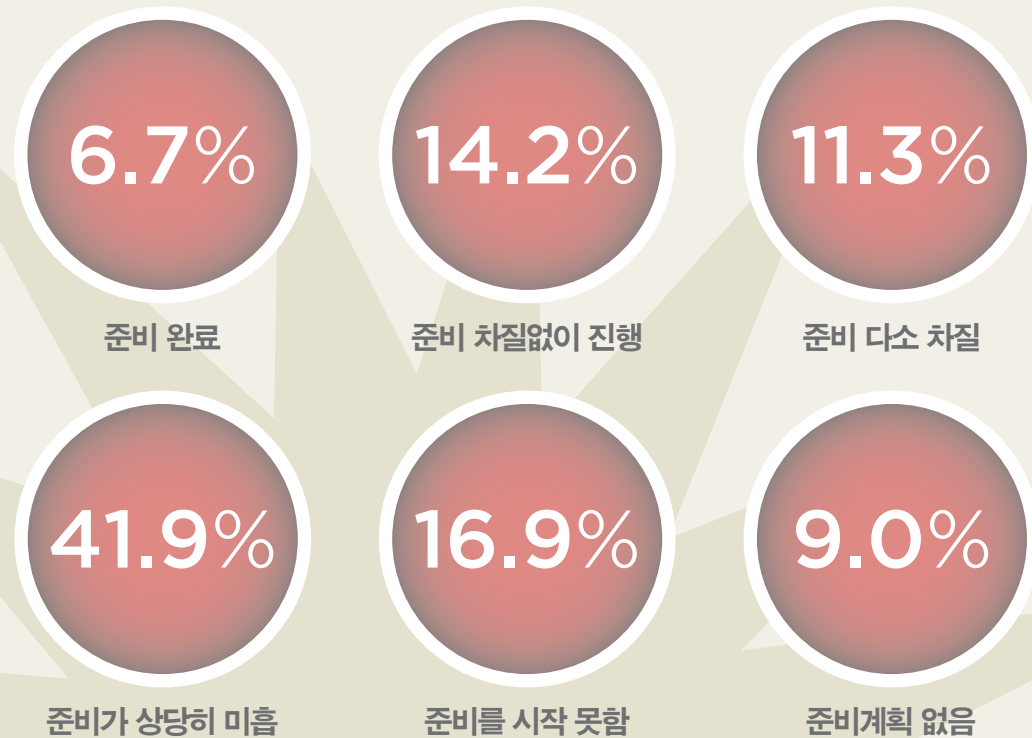
01. 베이비붐 세대 규모

단위 : 만명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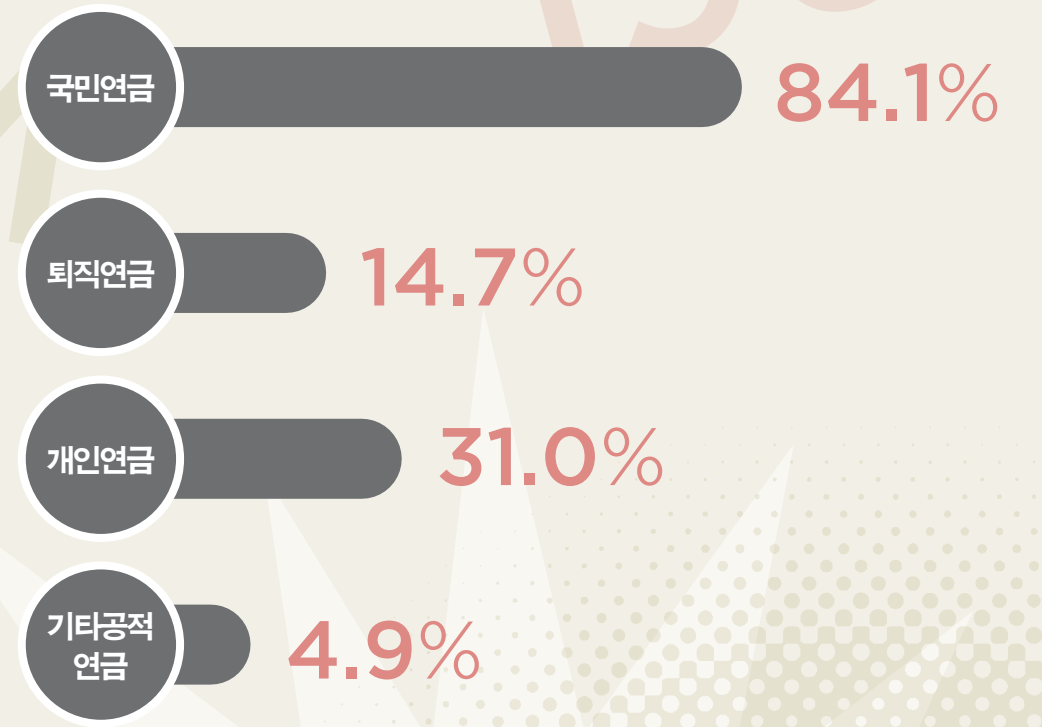
02. 베이비붐 세대 재무적 노후준비 정도

단위 : %
주 : 복수응답 및 세대주 기준
자료 : 보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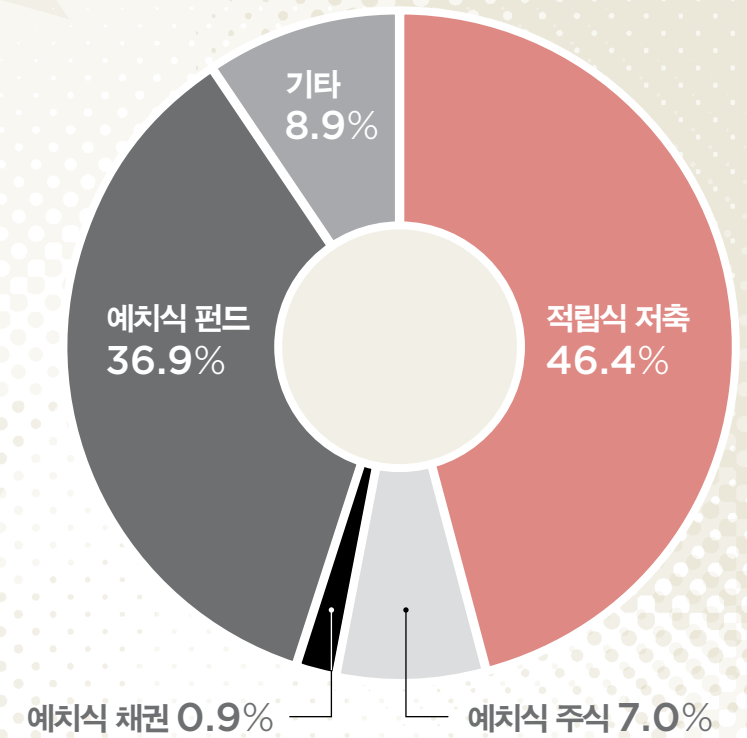
03. 베이비붐 세대의 공·사적연금 가입률

단위 : %
자료 :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자료 재인용



04. 베이비붐 세대의 금융자산 구성

단위 : %
주 : 적립식 저축은 적립식 펀드 및 보장성 보험 포함
자료 : 가계금융조사(2011)



늦은 퇴직으로 충분한 미래설계가능

중소기업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H씨.

가정주부인 부인과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H씨의 현재 소득은 다소 높은 편이다.

하지만 미래 자녀들에게 발생하게 될 대학 등록금,

결혼비용이 만만치 않다.

은퇴 시기는 65세로 계획하고 있으며,

노후 생활비로 월 200만원을 원하는 상황이다.

과연 H씨를 안심시켜 줄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방안은 무엇일까.



소득은 높은 편이나

자녀 3명에게 지출되는 비용으로 인해 다소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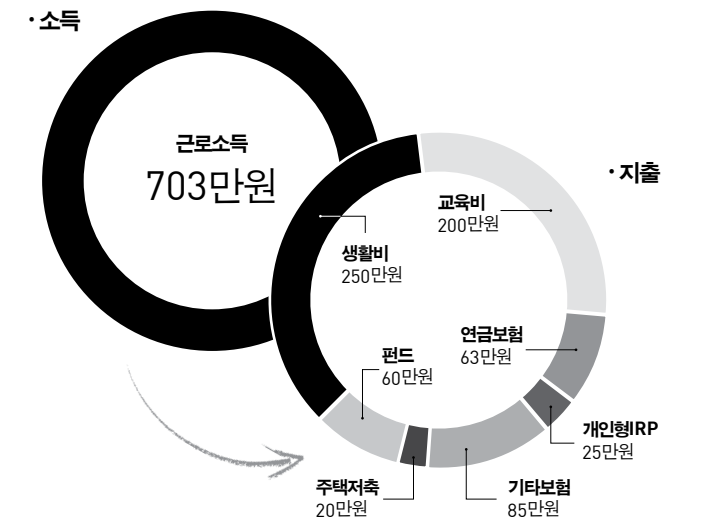
중소기업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H씨(만 49세)는 가정주부인 부인과 슬하에 고등학교 3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중학교 2학년생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현재 H씨는 약 3.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으로는 예/적금 2,000만원, 펀드 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부채로는 신용대출 1,000만원이 있다.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으로 월 703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는 반면 지출은 생활비 250만원, 교육비 200만원, 연금보험 63만원, 개인형 IRP 25만원, 기타보험 85만원, 자녀들을 위한 주택저축 20만원, 펀드 60만원이 있다.

H씨는 자녀가 3명으로 적지 않은 편이지만 근로소득이 높아 현재 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다. 다만 향후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될 경우 발생할 대학등록금(1인당 4,000만원 예상)과 미래 자녀들의 결혼비용(1인당 1억원 예상) 등을 생각하면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의 운용에 고민이 생긴다.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아파트	3억 5,000만원
	예/적금	2,500만 원
	펀드	2,500만 원
· 부채	신용대출	1,000만 원
· 순자산		3억 9,000만 원



65세에 은퇴할 예정이며

노후 생활비로 월 200만원을 원하는 상황

H씨는 은퇴시기를 65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85세까지의 미래설계를 원한다. 현재 H씨는 생활비로 25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은퇴 후에는 자녀 독립 등을 감안할 때 현 수준보다 다소 낮은 2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H씨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65세부터 매월 약 95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을 한 부분을 제외하고 은퇴 직전까지 약 20년의 근속연수를 적용해 산출한다. 그리고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형 IRP 가입을 통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H씨

도 올해부터 개인형 IRP에 가입했다. 이를 모두 감안하면 은퇴 후 10년간 매월 약 261만원의 퇴직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보험 형태로 5년 전부터 납입하고 있으며 은퇴 전까지 납입할 예정이다. 현 수준으로 계속 납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은퇴 후 10년간 매월 약 198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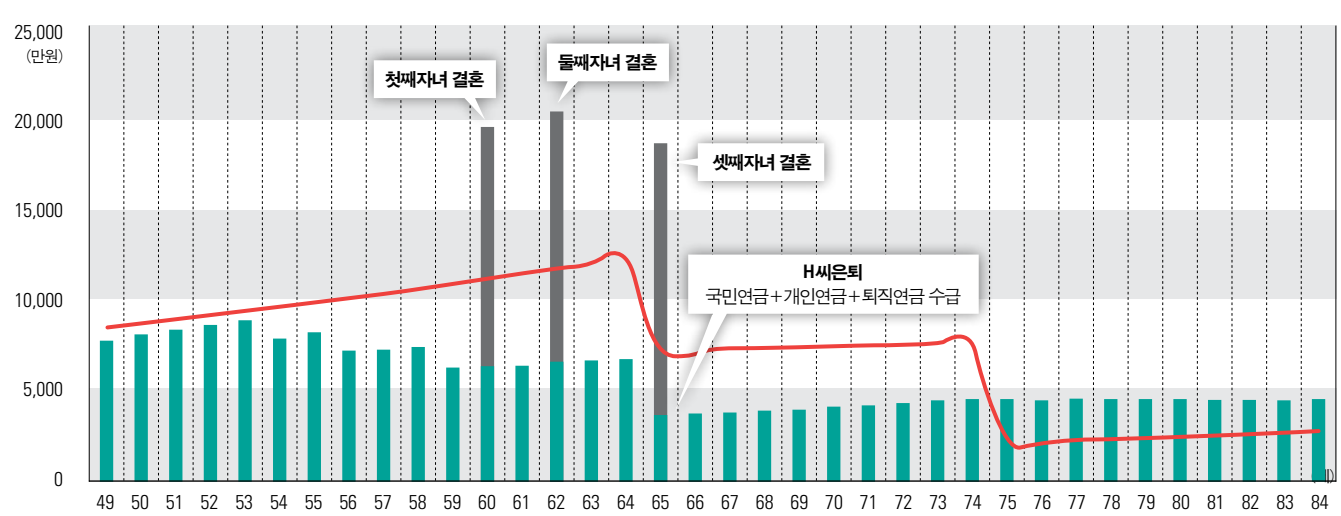
H씨의 은퇴 준비 상태 파악을 위해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¹⁾을 살펴보면, 자녀 결혼비용이 발생하는 60세, 62세, 65세를 제외하고 은퇴직전인 64세까지 지속적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하며, 은퇴 이후에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1) 물가상승률은 2.5%를 가정하고 수입은 근로소득과 연금이 포함되며, 지출은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포함. 자산부채 현황에서 불필요한 이자 납입 방지를 위해 신용대출을 예/적금 또는 펀드로 상환하는 것을 가정. 한편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필요 생활비가 적게 소요됨을 감안하여 75세부터 발생하는 노후생활비는 물가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74세까지는 여유자금이 생긴다. 그리고 국민연금만을 수령하게 되는 75세 이후로는 지속적인 자금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H씨의 우려와 달리 자녀 대학 등록금이 지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에도 교육비로 자녀 1인당 매월 60만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어 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녀들이 차례로 대학을 졸업할 때마다 지출 규모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많은 여유자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 볼 때 H씨는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고, 전체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하는 시기가 자녀들이 결혼하는 시기와 75세 이후로 국한되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짐작할 수 있다.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



예/적금 수준의 수익률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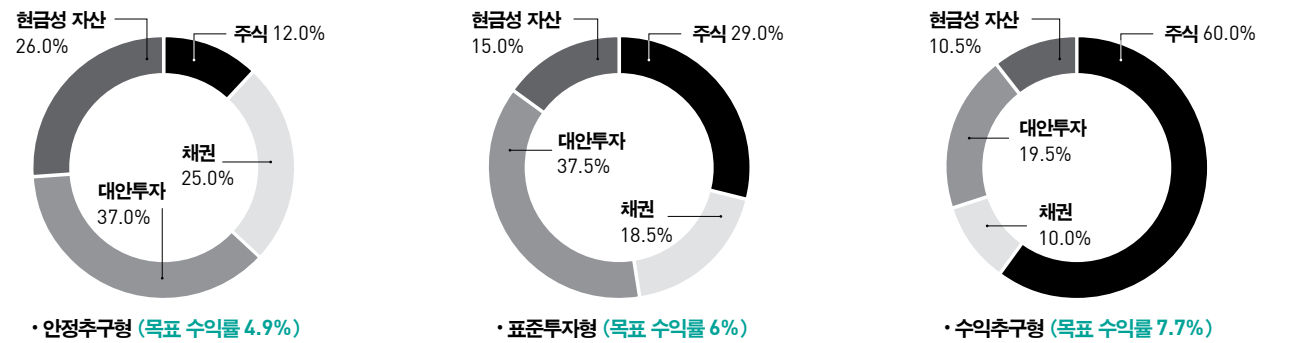
안정적인 노후 생활 영위 가능

앞서 수입-지출 현금흐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H씨의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는 편이다. H씨가 은퇴 이후 노후 생활비로 200만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향후에 금융자산을 예/적금 형태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운용²⁾하더라도 85세에 약 6.7억원의 자산이 남게 되어 이를 자녀들에게 상속해줄 수 있다. 현재 하나대투증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H씨의 목표수익률인 1.7%는 안정추구형(4.9%)보다 크게 낮은 수익률로 위험을 감내하지 않아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H씨가 예/적금 수익률로 금융자산을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노후 생활비와 자녀 상속액을 조정하거나 은퇴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등의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H씨가 예상하고 있는 노후 생활비 200만원은 다소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향해보자. 노후 생활비

를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자녀 상속액이 4.5억원으로 다소 감소하게 된다. 즉 노후 생활비를 50만원 증가시키더라도 부동산자산을 이용하지 않고 약 1억원의 금융자산을 남기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미래 상황이 다소 변해 퇴직이 예상보다 빨라지는 경우를 가정해 은퇴시기를 63세 정도로 앞당겨 보자. 이럴 경우 월 200만원의 생활비를 지출하면서 85세에 약 2,000만원 정도의 금융자산과 3.5억원의 부동산자산이 남게 된다. 즉 2년 더 빨리 은퇴하게 되면 약 3억원의 금융자산을 미리 소진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지금까지 제시한 시나리오는 수익률을 예/적금 수준으로 고정한 경우이며, 만약 H씨가 위험을 수용하여 3%대의 수익률을 목표수익률로 산정하게 된다면 노후 생활비 상향 및 은퇴시기 조절에 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2) 예/적금 수익률을 1.7% 수준으로 가정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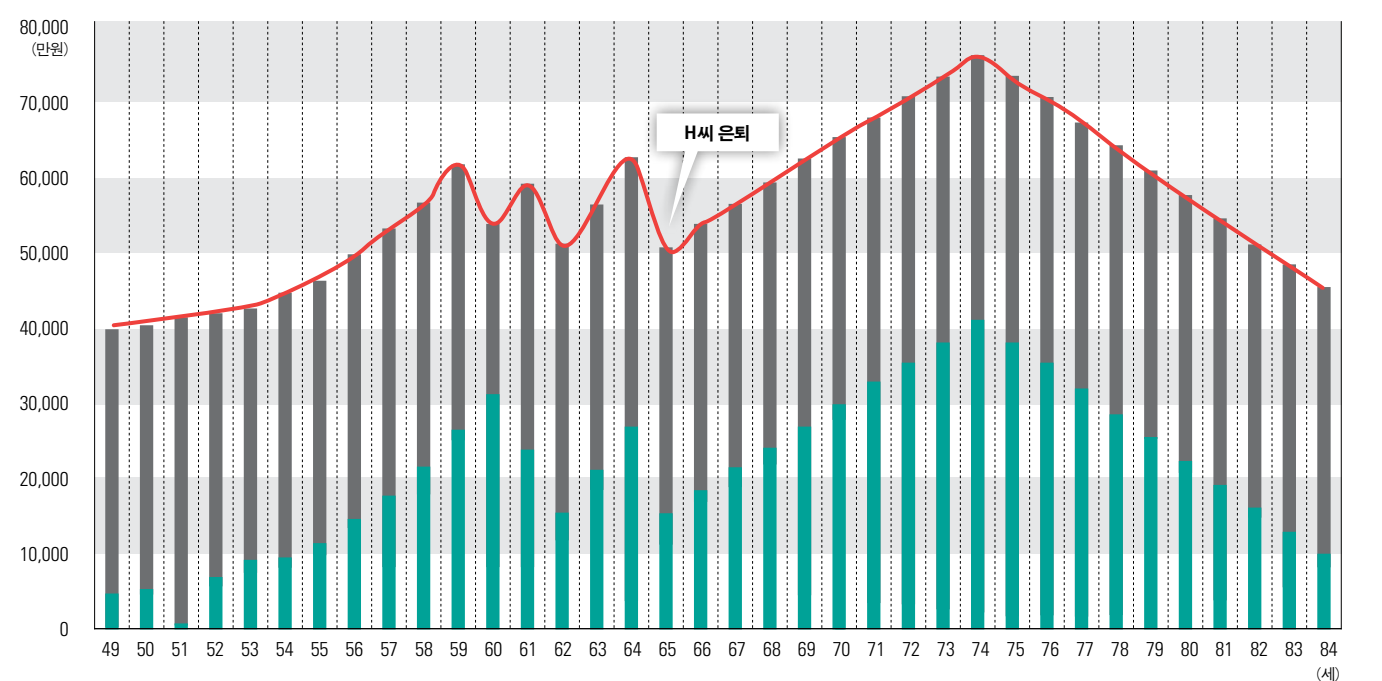
• 주 : 하나대투증권에서는 '머니TALK'를 통해 매분기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 제시
 • 자료 : 하나대투증권, "머니TALK", 2015.07

은퇴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조기에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H씨는 자녀가 3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보험료, 교육비 등의 지출 규모가 큰 편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 없이 자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용 가능한 금융자산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에 유리하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직전인 65세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소득 절벽구간이 없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보

다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H씨는 45세부터 연금보험에 목돈을 불입하고 있으며, 최근 개인형 IRP에도 가입하는 등 노후 준비에 적극적인 준비를 해왔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보자.

순자산 흐름³⁾



3) 위 순자산 흐름은 노후 생활비를 250만원, 목표수익률 1.7%로 설정할 경우를 나타냄



단순증여 vs 부담부증여

채무도 증여하면 절세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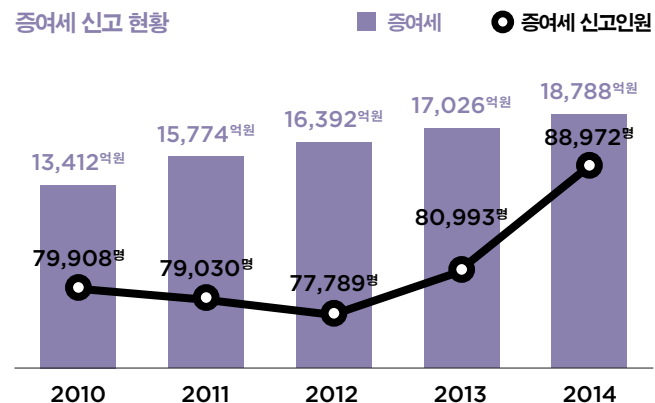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전에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부채를 안고 증여하면 적용 세율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에 항상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상황에 부담부증여가 유리한지 살펴보자.

최근 부동산을 증여할 때 단순증여가 유리한지, 증여할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세금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인원수와 증여재산가액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절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SE -

김부자 씨(65세)는 10년 전 한 빌딩을 25억원에 취득했다. 취득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14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현재 대출 잔액은 약 12억원이다. 이 빌딩의 임대보증금은 2억원, 월세는 약 2,0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 2015년 8월 1일 현재, 빌딩의 시가는 50억원으로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김씨는 상속 대비로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 이 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대출과 임대보증금도 함께 증여하면 증여세가 절세될까? 자녀는 이미 성인이고 10년 이내 사전 증여 받은 재산이 없는 상태다.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4년

A1. 단순증여하는 경우의 세금 -

자녀에게 채무는 물려주지 않고 오직 빌딩 50억원만 물려주는 경우를 '단순 증여'라 한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50억원 빌딩을 증여하되, 금융기관 대출과 임대보증금 14억원은 아버지가 직접 갚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text{증여세(납부자는 자녀) :} \\ &((50\text{억원}-5,000\text{만원}) \times 50\% - 4\text{억 } 6,000\text{만원}) \times 90\% \\ &= 18\text{억 } 1,350\text{만원} \end{aligned}$$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A2.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의 세금 -

아버지가 자녀에게 시가 50억원 빌딩과 함께 금융기관 대출과 임대보증금 14억원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아버지가 갚아야 할 채무인 대출과 임대보증금 14억원은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하므로, 아버지는 금전을 받고 매도한 것처럼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는 빌딩 36억원(36억원=50억원-14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부담부증여'라 한다 위 사례를 보면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세금 측면에서 약 4억4,700만원 유리하다. 따라서 자녀는 아버지의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떠안고 증여받은 후 대출 이자비용은 임대수익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로써 자녀는 임대수익 창출로 인해 차곡차곡 자금축적이 되는 금융재산을 모을 수 있으며 추후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담부증여를 선택할 때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체크해야 한다. 첫째, 2015년 8월 1일 현재 빌딩(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대출과 임대보증금)가 있어야 한다. 아버지가 소유한 다른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개인 신용대출금을 자녀가 대신 갚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빌딩에 담보된 채무가 반드시 아버지(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담보 제공해 어머니가 차주(채무자)인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성립되지 않는다. 셋째,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려면 빌딩에 담보된 채무를 자녀가 인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증여계약서, 전세계약서, 전세금 반환내역,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자녀가 채무를 인수한 후 대출원리금 및 임대보증금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면 추가 증여로 간주되므로 채무는 반드시 자녀의 소득으로 갚도록 사후관리해야 한다. 끝으로 주의할 점은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부담부증여란 채무는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로 부담하고, 자녀는 순수증여재산가액만큼만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낮다면 양도소득세(6~38%)부담이 커져 자녀가 단순증여세(10~50%)를 부담하는 것보다 세금이 커질 수 있다. 즉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가액,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증여를 고려할 때에는 세무전문가로부터 단순증여가 유리한지, 부담부증여가 유리한지 미리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begin{aligned} &\text{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납부자는 아버지) :} \\ &1\text{억 } 8,243\text{만 } 5,000\text{원(소득세율 } 38\% \text{ 적용)} \end{aligned}$$



$$\begin{aligned} &\text{증여세(납부자는 자녀) :} \\ &((30\text{억원}-5,000\text{만원}) \times 50\% - 4\text{억 } 6,000\text{만원}) \times 90\% \\ &= 11\text{억 } 8,350\text{만원} \end{aligned}$$



$$\begin{aligned} &\text{세금의 합 :} \\ &13\text{억 } 6,593\text{만 } 5,000\text{원} \end{aligned}$$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과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부담하는 채무만큼은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며, 총재산 중에서 채무를 뺀 금액만큼은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한다(부담부증여).

재산과 채무를 함께 증여(부담부증여)할 때에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대출금 및 임대보증금)가 있어야 한다.
- ② 채무는 반드시 증여일 현재 증여자(아버지)의 채무이어야 한다.
- ③ 채무를 수증자(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전세계약서,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채무는 자녀가 갚아야 한다.

단순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합이 작을 경우에만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고령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고령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고령인구는 638.6만명 수준에 이르렀고, 2024년에는 983.4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와 더불어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들 고령자들을 위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 신체활동이나 일상 가사활동을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도 보험대상이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수급대상자는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방문조사를 받게 된다. 방문조사는 신청인에 대해 기본적 일상생활 등 12개 영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요양등급 판정을 위해 점수화된다. 그리고 요양등급은 방문조사결과와 의사의 소견서를 토대로 1~5등급과 등급 외로 판정하게 된다. 1등급은 전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는데 요양등급에 따라 요양보험으로부터 차별화된 지원을 받는다. 지원받는 서비스는 수급대상자의 환경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특별현금서비스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시설서비스의 경우는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을 지원받고,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통해 재활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따라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고령의 어르신 을 모시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현재 사회보험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가 핵가족화 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고령자를 가족이 장기간 요양을 돌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청자격 및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인정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해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 • 그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 점수를 산정
등급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 • 등급은 1~5등급, 등급외는 A~C
결과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 부담률, 월 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인 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수령
서비스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특별현금서비스 등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



의료에서부터 생활업종 할인까지 생활행복의 노하우가 되는

‘행복노하우 카드’



- 의료업종(병원, 약국 등) 5~10% 할인
- 생활업종(대형마트, 휴대폰요금, 택시) 5~10% 할인
- SK주유소 5천원 할인쿠폰 (5만원 이상 4회 이상이용시)
- 장기고객 우대서비스 (신세계상품권 제공)

* 의료업종/생활업종 할인은 전월 사용금액(30/60만원 이상)에 따라 차등 제공됩니다.

※ 보육료 결제기능 추가된 카드의 보육료 신청자(부모)는 기존 카드의 서비스 대상군에서 제외되어 전월 사용금액 산정 시 제외
 ※ 유효기간 만료 전에 카드를 교체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월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단, 카드 발급 및 배송에 소요된 비용과 기존 부가서비스 비용을 공제하여 차액입금 하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카드 발급 및 배송에 소요된 비용의 공제는 최소 1년 경과 후에 진행)
 ※ 카드이탈시 제공되는 후안비 및 할인혜택의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사(2024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출소 - 폐지 안)만 유지됩니다.
 ※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세부업종에 한정적인 제휴조건 변경, 독신 신청, 금융회경의 급변, 카드입사의 변경위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의 경우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카드대금상환시 우편서신 이메일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출사 이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카드의 수직성 유지가 어려워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5천원 선부터 차등 정액고지 해 드립니다. (가맹고지 방법: 카드대금상환시 우편서신,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하나)
 ※ 2개 이상 카드사별 카드를 소지하신 경우, 회원님의 보유카드 정보가 어신금융협회를 통해 카드사간 공유되어 신용등급이나 이월정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카드 발급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상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www.hanacard.co.kr)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터(800-1111)로 문의 바랍니다.
 * 연회비 : 국내전용 9천원 (기본 6천원 + 제휴 3천원) / 국내외겸용 1만원(기본 7천원 + 제휴 3천원)

고객센터 1800-1111 카드대출 (현금서비스/카드론) 1800-1000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연이자율(24.0-29.0%)은 정상이자율 및 연체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나만의 삶을 쓰다 '자서전 쓰기'가 주는 행복

행복을 스스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가족계획정책이 시행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주역들이기도 하다. 이들이 행복한 노년의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한 것. 사실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의 경우 행복한 노년의 상(像)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는 행복한 노년의 삶을 따라할 만한 모델이 없다. 어쩌면 베이비부머 세대야말로 행복한 노년의 상을 만드는 1세대가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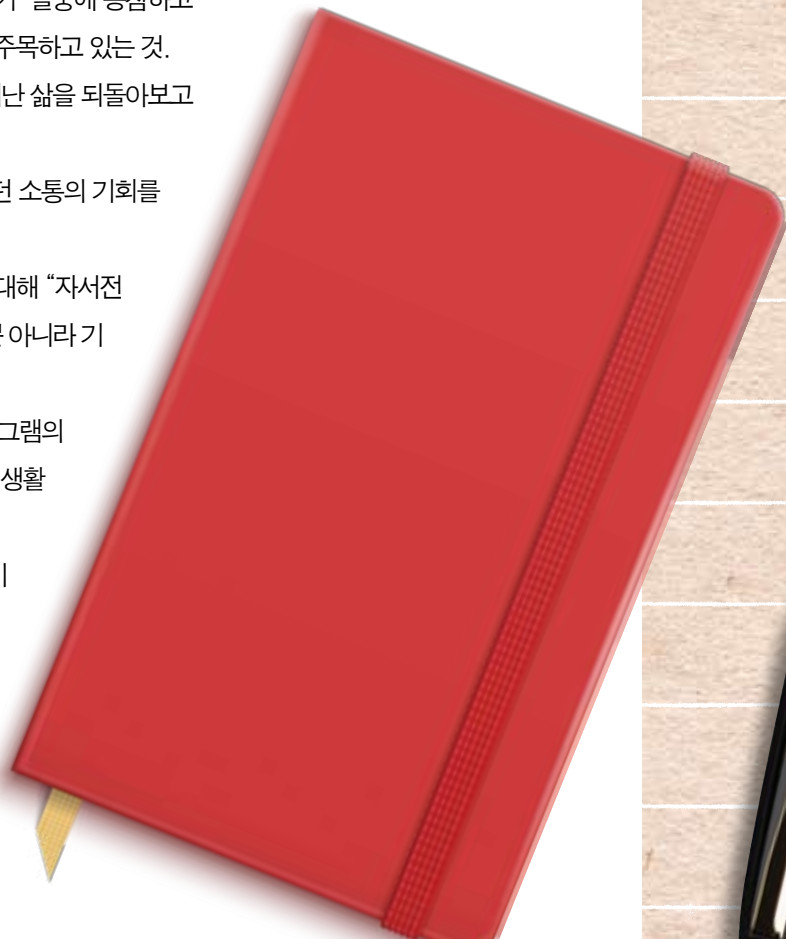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50대는 말할 것도 없고 60세나 70세는 노인 축에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우리 사회는 많이 젊어졌다. 피터 드러커가 “나의 전성기는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 간이었다”는 말을 했듯이 이전 70세 이후에도 20~30년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길어진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최근 많은 이들이 ‘자서전 쓰기’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인생의 황혼기가 아닌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는 전환점으로 자서전 쓰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 평범한 사람들에게 자서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바로 자서전 쓰기를 통해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함과 동시에 남아 있는 삶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특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나 지혜를 자서전을 통해 남김으로써 자식들과 잃어버렸던 소통의 기회를 찾는 것이야말로 자서전 쓰기가 주는 특별한 선물이다.

장영희 자서전쓰기사업단장은 나만의 자서전 쓰기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에 대해 “자서전 쓰기는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는 의미가 있다. 글 쓰는 과정을 통해 심리 치료의 효과뿐 아니라 기억력 개선 효과, 자신감 회복,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유를 갖게 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경북대 심리학과 진영선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 ‘노인집단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의 효과’ (2011)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14명을 대상으로 자서전을 쓰도록 한 결과, 생활의 만족도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우울감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 각 지역 지자체나 도서관, 민간단체 등에서 자서전 쓰기 강좌들이 속속 개설되고 있다. 행복한 시니어의 삶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인 자서전 쓰기는 작은 펜으로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임에 틀림없다.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 자서전 작가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



장영희 자서전쓰기사업단장이 말하는 나만의 자서전 쓰기 5가지 키워드

01. 일단 노트를 준비하자

평생 글이라고는 제대로 써 본 적이 없다고 망설인다면 일단 노트를 준비하라.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이야기 아닌가. 고향도 가보고 내가 살던 곳도 가보고 형제들도 마을에 살던 사람들도 만나고 사진도 들춰 본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루 30분이라도 써 보면 좋다. 맞춤법이나 앞뒤 문맥이 맞지 않아도 상관 없다. 두서가 없더라도 일단 써 본다.

02. 기억을 더듬어 하나하나 풀어 쓴다

나의 첫 기억을 써본다. 내 생애 첫 번째 기억은 무엇일까? 나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나? 형제들은 어땠나? 내가 살던 고향마을의 이웃은? 나의 터닝포인트는 무엇이었나? 결혼을 했다면 지금의 남편 혹은 아내는 어떻게 만났나? 어떠한 결혼 생활을 했는가? 등으로 전개해 본다.

03. 인생연대표를 작성해 본다

나이, 연도, 사연, 가족상황, 시대적 배경을 정리한다. 미래는 자기가 살고 싶은 나이까지 쓰면 된다. 미래 계획도 자서전에 넣을 수 있다. 물론 ‘할 것이다’가 아니고 ‘했다’의 단정형으로 미래 경험한 것처럼 쓴다.

예시 - 장영희 나이 90세 2045년 5월5일 글을 쓰다가 잠시 즐았는데 그대로 지구별 여행을 마치고 떠났다.

04. 이야기거리가 되는 자료를 모은다

사진자료나 일기, 편지 등 이야기거리가 되는 자료들을 모은다. 자료들을 모으다보면 기억에서 잊혀진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소재를 발견하기도 한다. 추억 속의 장소를 찾아가보거나,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해 두는 것도 글쓰기에 좋은 바탕이 된다.

05. 미래 계획을 세워본다

글로 써 놓으면 이루어진다. 앞으로 수십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해본다. 살아 있는 동안 해야 할 미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다. 남은 인생은 무엇을 이룰 것인지, 꿈은 무엇인지를 글로 쓰고, 글로 나타낼 때는 ‘했다’라는 단정형으로 쓴다.



마음 가는대로, 아트테라피

힐링의 또 다른 트렌드로 아트테라피가 화제다. 컬러링북, 페이퍼 커팅까지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칠하고 오리다보면,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메마른 가슴에 단비를 뿌리고 때로는 삶의 희망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힐링, 아트테라피의 모든 것.

넘치는 격무에 시달리는 회사원 최수민(43세)씨는 최근 색칠 공부에 빠져있다. 얼마 전 우연히 들린 서점에서 컬러링북을 발견한 후 틈나는 대로 색칠 중이다. 밑그림에 고운 색을 하나하나 덧입히며 잠시 동안이라도 현실을 벗어나 눈앞의 색에 집중할 수 있다. 그 작업을 통해 흐트러져 있는 정신을 차분히 정리하고 휴식을 취한다. 그림에 집중하다보면 일종의 명상과도 같은 무념무상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바로 그게 휴식이 되는 것이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하다 보면 걱정스러운 일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잊고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며, 특히 “바쁜 회사생활로 취미생활을 즐긴다는 건 사치라고 여겼는데 색칠 공부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지속가능한 취미생활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어떤 것에 몸과 정신을 집중하는 ‘몰입’이 힘들다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치열한 경쟁과 한 시도 벗어날 수 없는 스마트폰의 굴레에서 우리는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

아트테라피란 색이나 그림을 이용해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아트테라피는 고단한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좋은 도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색칠하기, 오리기 등의 행위로 마음을 표현하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재미를 느낀다. 그동안 어린이아이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색칠공부가 현대인들의 마음에 심을 채우는 힐링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아트테라피의 일환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고작 색칠하기인데 얼마나 대단한 효과가 있겠어’라며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트테라피는 미술치료와 맥을 같이 한다. 사실 미술치료의 효과는 이미 많은 시간을 거쳐 검증된 바가 있다.

이탈리아의 한 연구팀이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육체적 통증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또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의하면, 이 연구팀은 피실험자들의 손에 레이저 파에 의한 자극을 가할 때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게 했다. 이 때 이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고, 추한 그림이나 빈 벽을 보고 있을 때보다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피실험자들이 느끼는 고통의 강도가 1/3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단한 삶을
치유하는
내마음의
행위

컬러링북이
베이스 스킬로
반영될 거

마음을 치유하는
컬러링북 3

스위스 알레스 하임에 있는 루카스클리닉은 암을 치료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미술치료를 이용한다. 환자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발산, 질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서양에서는 이미 과잉행동장애 등의 소아질환, 치매나 중풍 노인 재활, 불안 및 우울 등의 정신신경계질환, 악성종양 질환의 재활 및 심리치료에 유용한 보조요법으로 미술치료를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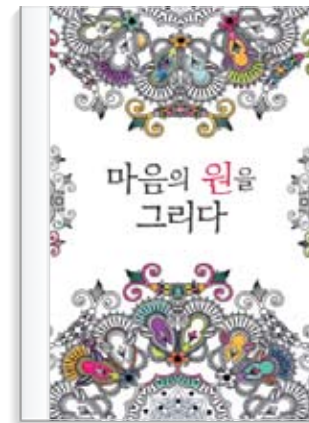
아트테라피 열풍은 서점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출간한 조해너 배스포드의 컬러링북 ‘비밀의 정원’은 국내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취미생활을 통한 주의 전환이 중요하다”며 “중요성을 알면서도 귀찮거나 생각보다 쉽지 않아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색칠하기는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라고 조언했다.

색칠하기의 선풍적 인기로 최근 아트테라피는 페이퍼 커팅으로 영역이 확대됐다. 페이퍼 커팅은 말 그대로 종이자르기다. 일직선, 곡선의 그림을 자르다보면 어느새 몰입해 재미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일러스트레이터의 컬러링북
오연경 저 / 미메시스
일상의 물건 하나하나의 포인트를 집어내 스케치되어 있다. 초보자 수준에서부터 고급 단계까지 단계별로 구성했다.



마음의 원을 그리다 안티 스트레스 컬러링북
만다라 편집부 저 / 카멜레온북스
우주를 상징하는 만다라 60가지가 담겨있다. 만다라는 오래전부터 명상의 도구로 사용됐다. 색칠하다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나비의 꿈
장인섭, 정영신 저 / 일에이치코리아
입체 컬러링북으로 나비와 꽃 그림이 담겨져 있다. 색칠을 다 한 후에는 접을 수 있어 작품에 대한 완성도를 높인다.

아트테라피 북 200%
활용법!

01. 재료를 선택한다
세상에는 무궁무진한 채색 재료가 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감, 색연필에서부터 꽃잎, 곡식과 같은 자연의 재료들도 있다. 각자의 기호와 상황에 맞는 재료를 선택한다.

02. 밑그림을 채운다
색을 칠하고 붙이고 뿌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잘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얽매이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하면 된다.

03. 완성된 그림을 보며 즐긴다
그림을 보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상담을 받아도 좋고, 그냥 벽에 걸어놓고 즐겨도 좋다. 제대로 열심히 채색했다면 이미 당신은 힐링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꾸꾸는 텃밭

주렁주렁 탐스러운 호박, 알싸한 고추, 싱싱한 상추쌈의 여유까지 채소를 직접 키우는

소소한 재미에서 건강까지 챙기는 도시 텃밭의 매력에 빠져보자. 쉽고 간편하게 나의 애완 텃밭 가꾸기

텃밭 가꾸기로 삶의 재미를 쏙쏙 붙여넣고 있는 직장인 홍여진(47세)씨. 몇 년 전부터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일궈고 있다. 처음엔 작은 화분 몇 개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일이 커졌다. 베란다를 새롭게 리모델링해 제법 텃밭의 모양을 제대로 갖췄다.

“처음엔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에서 결심을 했어요. 막상 텃밭을 가꾸다보니 정성스럽게 기르며 수확하는 열매들에서 얻는 즐거움은 삶의 또 다른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텃밭 가꾸기로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베란다, 옥상, 미당 한 칸에 채소가 자라는 화분을 놓아두기도 하고, 아예 흙을 깔고 작은 텃밭을 마련하는 이들도 있다. 덕분에 식탁은 풍성해지고, 집안 인테리어는 화사해졌다. 도시 농부가 된 그들의 얼굴엔 미소가 한소쿠리다.

텃밭 가꾸기는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넘어 도시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정서적 힐링의 공간으로 역할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농업(Agriculture)과 여흥(Entertain-

ment)을 결합한 애그리테인먼트(Agritainment)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애그리테인먼트는 경쟁에 지친 도시민들이 마음의 휴식을 얻고 여가 차원에서 농업을 한다는 의미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텃밭 붐에 일조했다. 안전한 먹거리를 찾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 집 옥상, 아파트 베란다, 내가 사는 도시 근처 친구네 집에서 자투리땅을 이용해 내가 직접 심고 가꾸는 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미국 미시간대학의 스티브 카플란 교수의 ‘자연이 인간 정신에 미치는 이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자연을 체험할 때 인간의 기력이 회복되며, 식물의 녹색은 휴식과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전문가들은 “식물을 돌보거나 혹은 식물 근처에서 있거나 해도 정서적 안정감에 관한 수치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시형 세로토닌문화 원장은 “집안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으로도 수확할 때 촉진되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통해 ‘숲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텃밭 레시피

우리 집 햇살 좋은 창가나 테이블에 두면 온 집안이 행복해지는 나만의 텃밭 만들기에 도전해보자. 은은한 향기의 허브에서 예쁘게 키우고 맛있게 먹는 새싹채소까지 텃밭 레시피.

새싹채소

- ① 무순 씨앗을 4시간 정도 물에 불린 다음, 밑이 평평한 그릇 위에 젖은 거즈를 깔고 불린 무순 씨앗을 골고루 퍼서 뿌린다.
- ② 씨앗을 뿌린 다음에는 천이나 신문지로 덮어서 햇빛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거즈가 마르지 않도록 하루 6~7회 정도 분무기로 물을 뿌린다.
- ③ 1~3일 정도가 지나 싹이 나오면, 신문지나 천을 거두고 햇빛을 충분히 쬐인다. 이때 하루 두세 번 정도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서 거즈가 마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④ 여름에는 5~6일, 겨울에는 6~7일 정도가 지나 무순이 자라면 싹을 잘라 먹을 수 있다.

* 무순 외에도 알팔파, 브로콜리, 양배추싹, 크레스싹, 순무싹, 밀싹 등이 있다.

허브

- ① 네모난 나무 박스를 구해서 준비한다.
- ② 우선 바닥 부분에 몇 개의 구멍을 내어 배수구를 만든다.
- ③ 자갈이나 마사토를 깔아 물 빠짐이 원활하도록 해주고, 준비한 배양토를 바닥에 골고루 퍼서 깎는다.
- ④ 종류별로 그룹을 지어 허브를 포트에서 꺼낸 다음, 흙이 붙어 있는 뿌리째 꺼내어 나무 상자 안에 넣어준다.
- ⑤ 각각의 허브를 다 넣은 다음, 준비한 배양토로 빈 공간을 채워준다. 이때 허브가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처음에는 다소 공간을 비우고 채우는 게 좋다.

* 허브 종류로는 스위트 바질, 타임, 라벤더, 로즈마리, 헬리오트로프 등이 있다.

텃밭 가이드

텃밭 재료를 구하기 좋은 온라인 몰

- 브이가든(www.vgarden.co.kr)** - 누구나 채소를 쉽게 키울 수 있는 관련 물품 판매
- 다농(www.danong.co.kr)** - 원예에 관련한 모든 것을 판매하는 곳
- CZ Mart(www.czmart.co.kr)** - 베란다 텃밭을 가꿀 수 있는 패키지와 상품, 원예 자재, 씨앗, 기획 상품 등을 만날 수 있다.
- 베란다레시피(verandarecipe.com)** - 키친가드닝, 베란다텃밭세트, 실내원예용품, 채소씨앗, 허브씨앗 등을 판매하는 곳이다.

우리 집에 꼭 맞는 채소고르기

-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 - 케일, 청경채, 로메인상추, 방울토마토
- 햇빛이 보통인 베란다** - 셀러리, 잎들깨, 썩갓
- 햇빛이 잘 안 드는 베란다** - 부추, 쪽파, 아욱, 마나리

텃밭가꾸기에 도움이 되는 애플리케이션

-  **실내정원 꾸미기** - 가상공간에서 실내 정원을 꾸미며 다양한 식물의 정보와 관리법을 알려준다.
-  **행복한 텃밭 가꾸기 동구밭** - 식물에 대한 기본 정보와 기르며 거치게 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
-  **도시 농부** - 도시농업인을 위한 커뮤니티로 텃밭정보를 공유한다.
-  **병해충 자가진단** - 정원에 병해충이 들었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며 진단이 불분명할 경우 앱을 통해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가든하다** - 원예작물이나 가드닝의 사진을 공유하며 정보를 교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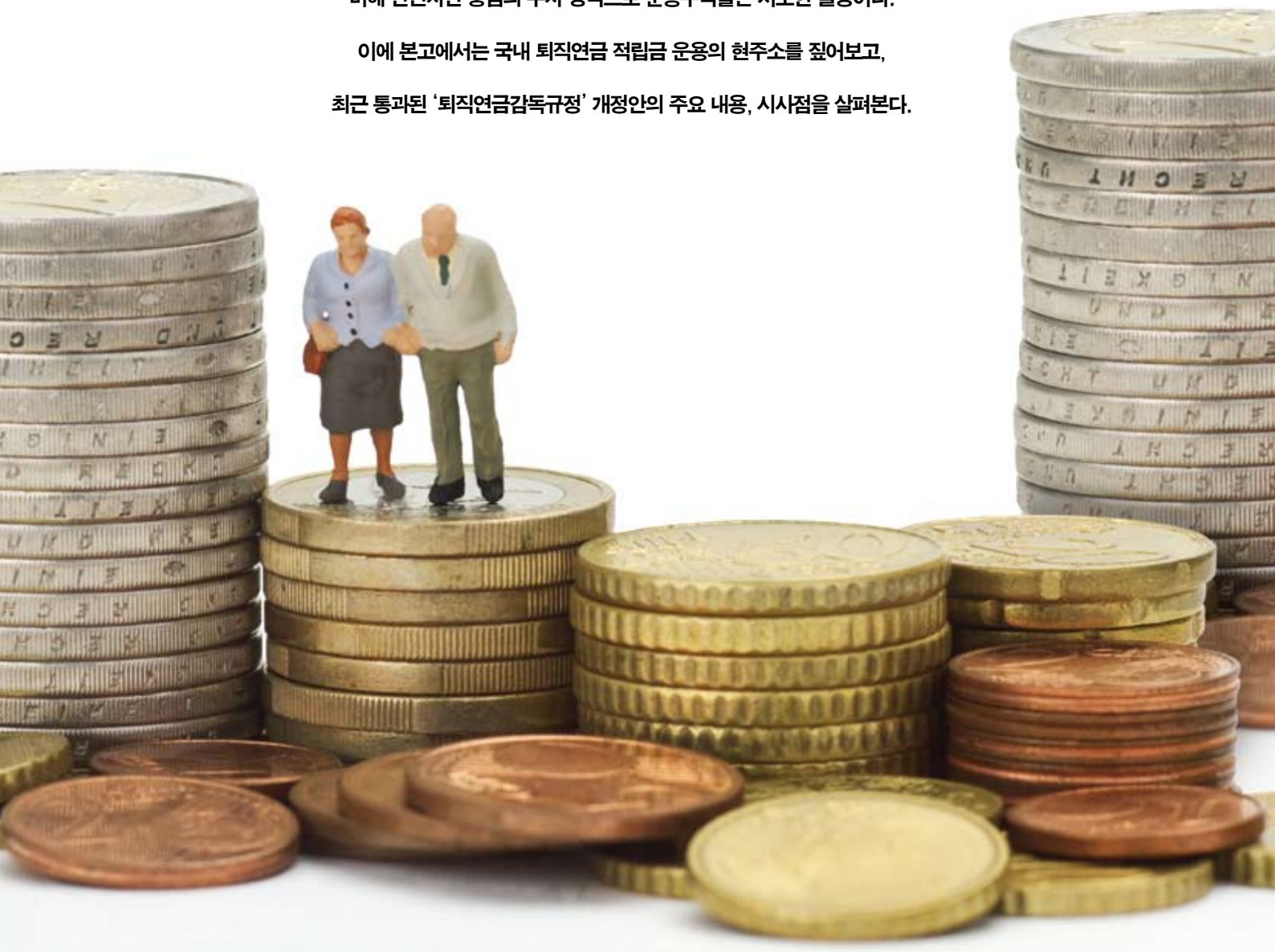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국내 퇴직연금시장이 도입 10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양적 성장에

비해 안전자산 중심의 투자 방식으로 운용수익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최근 통과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시사점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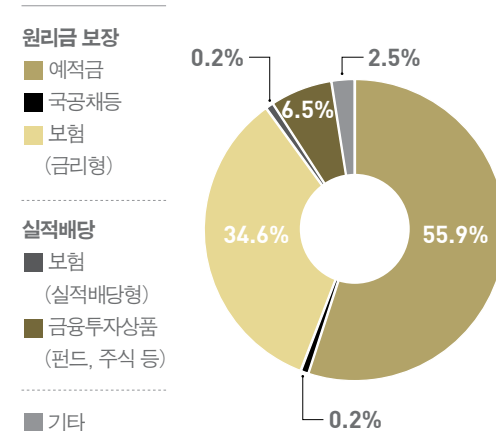
도입 10년을 맞은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적립금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원금보장 상품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등 지나치게 보수적인 운용구조를 유지하면서 수익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기준금리가 1% 대로 하락하면서 노후대비 측면에서 안전자산 중심의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이 7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 2015년 7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과 최근 통과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안전자산 중심의 투자로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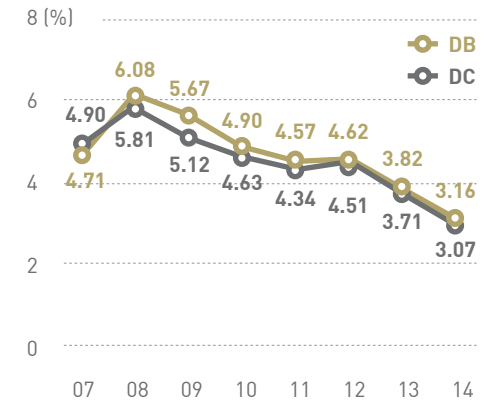
2005년 도입된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2015년 3월말 기준 적립금 107.7조원 수준으로 급성장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투자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안전자산 중심의 운용구조 유지로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실제 국내 퇴직연금시장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월말 기준 90.7%로 이 중 55.9%가 모두 예·적금에 투자되고 있는 반면,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 운용구조와 함께 지속적 금리 하락으로 2008년 5%를 상회했던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지난해 말 기준 3% 초반으로 하락했으며, 2015년 들어 두 차례에 걸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예·적금 금리가 1% 대로 떨어지면서 수익률은 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성장·저금리와 함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후대비를 위해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2015년 3월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원리금보장형 연도별 운용수익률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저금리 시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

• 정부도 안전자산 중심의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7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운용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와 가입자보호 장치 강화 내용 등을 반영해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대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먼저 투자가능 금융상품으로 열거되지 않은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퇴직연금자산 편입을 금지 하던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규제를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는 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규제로 전환했다. 즉, 종전까지는 투자가능자산을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의 투자를 금지했다면 개정안에서는 비상장주식,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형 펀드 등 투자 불가능자산으로 열거해 놓은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퇴직연금 자산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DC/IRP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를 기존의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주식,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등 일부 고위험자산의 투자는 여전히 금지되며, 기존에 금지되었던 특별자산펀드 및 혼합자산펀드 투자는 허용된다. 회사가 운용 결과를 책임지는 DB형과 달리 DC/IRP형은 가입자가 운용손익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동안 DB형 대비 다소 엄격한 운용규제가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초저금리 상황 하에서 안전 자산 투자만으로는 노후대비가 충분치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DC/IRP형의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한 운용규제가 DB형 수준으로 완화된 것이다.

셋째, DB형 및 DC/IRP형에 모두 존재하던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별 운용한도가 폐지되었다. 기존 DB형 및 DC/IRP형의 경우 각각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 70% 및 40% 내에서 채무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개별자산별 투자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별 투자한도가 폐지되면서 DB형 및 DC/IRP형 모두 총 투자한도 70% 내에서 자유롭게 여러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특정사업자간 원리금 보장상품의 교환 한도를 사업자별 직전연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자사 상품 중심의 퇴직연금 운용 관행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이 단계적 축소과정을 거쳐 2015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특정사업자간 원리금 보장상품 집중교환 등으로 가입자가 원하는 상품을 편입하지 못하는 등의 자산운용상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사업자간 원리금 보장상품 교환한도를 설정했다.

다섯째, 퇴직연금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별도 동일 준칙 부재로 퇴직연금 중 신탁계약은 자본시장법, 보험계약은 보험업법상 규정을 간접적으로 준용해 왔으나,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방법 권유 시 적용되는 적정성 원칙, 투자자 성향분석 의무 등을 명문화한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을 추진한다.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개선 이후 원리금 비보장자산 운용규제

구분	DB형		DC/IRP형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 (비위험자산 제외)	70%	70%	40%	70%
지분증권 (예 : 주식)	30%	총한도 (70%) 내 자율운영	금지	금지
채무증권 (예 : 채권)	(국내적격사채) 100%		(국내적격사채) 100%	총한도 (70%) 내 자율운영
	(기타) 30%		(기타) 30%	
펀드 (실적배당형 보험 포함)	50%		30~40% (일부 금지)	
	(최대손실 △10% 이하) 100%		(최대손실 △10% 이하) 100%	
파생결합증권 (예 : ELS)	(△10%~△40%) 30%	(△10%~△40%) 금지		
	사모펀드	30%	금지	금지
증권예탁증권	30%	금지	금지	
파생상품	헷지목적만 허용	좌동	헷지목적만 허용	좌동

자료 : 금융위원회

퇴직연금 적립금 수익률 제고 및
자본시장 성장 예상

• 이번 제도 개편은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시장뿐 아니라 주식 및 펀드 등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포트폴리오 다양화 및 투자수익률 제고를 통해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의 전환 및 개별 투자한도 폐지에 따라 금융환경 및 가입자의 위험성향 등을 반영한 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DC형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 확대로 저금리 시대 위험자산 비중 증가를 통해 현재 3% 초반에 불과한 퇴직연금자산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는 자본시장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증가에 따른 주식형 펀드 수요 증가가 국내 펀드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증시의 수급환경 개선이 전망된다. 특히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퇴직연금의 특성을 고려 시 배당주 펀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가입자의 위험회피 성향 등을 고려할 경우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비중이 단기적으로 크게 확대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재의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있어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며, 저금리 지속 환경 하에서 장기적으로 서서히 위험자산 투자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지역 및 자산에 대한 분산투자와 함께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 증가

초저금리 상황에서 퇴직연금 자산을 예·적금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만 운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노후대비를 위한 적극적 자산축적을 위해 주식형 펀드 등에 분산투자할 필요가 있다. 과거 수익률이 높은 펀드 중심으로 연금자산 내 주식 비중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글로벌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해외펀드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내년부터 해외펀드에 대해 1인당 납입금액 3,000만원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이 면제된다는 점을 고려 시 장기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섹터형 펀드를 잘 골라 투자할 필요가 있다. 장기 투자 시 연 4% 내외의 안정적 수익률을 제공하는 글로벌 자산배분전략 상품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는 한편, 퇴직시점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해 포트폴리오 구조를 바꿔가는 라이프사이클 전략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젊은 층의 경우 위험자산 비중을 보다 높게 가져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등의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투자한도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지나친 고위험·고수익 자산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손실 발생 위험이 커진 만큼 자산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 DC형 규모가 증가하고 포트폴리오 중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제도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가입자 교육을 통해 자산운용 방법 및 금융지식 등을 축적해야 한다. 현재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입자 교육이 교육의 질과 책임의식이 결여된 채 상당 기간 방치될 경우 무의미한 행사에 그쳐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퇴직연금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사용자, 가입자 등 관련 주체들이 모두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대투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올해부터 늘어난 퇴직연금 세제혜택!
하나대투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2015년 연말정산시 약 **92만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2014년 400만원



2015년 700만원

※ 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산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

세제혜택 포인트

- ✓ **납입원금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간 700만원 한도) x 13.2%(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 퇴직금 및 추가납입한 적립금에 대한 운용 중 과세이연 효과
- ✓ 퇴직연금전용펀드로 낮은 펀드 수수료로 자산 증대 효과

수수료 *가입 후 기본 평가시 10% 할인 적용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 1억 이하 0.20%	- 1억 이하 0.20%
- 1억 초과 0.175%	- 1억 초과 0.175%

가입조건

- * 납입한도: 연간 1,200만원 / 150만원, DC형은 추가납입금 한도 기준 / 500만원(국민연금 제외)
- 퇴직연금 DB, DC, 기업형IRP 가입자
- 퇴직연금에 퇴직급여를 적립한 자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원리금보장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본 자료 기재된 집합투자증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3조에 의한 적립금을 납입하는 퇴직연금 전용상품입니다. ※ 과세 기준 및 방법 등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88-3111
www.hanaw.com

행복한 금융을 열어갑니다
하나대투증권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에서
'세계의 중앙은행'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IMF



IMF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새로운 국제통화와 국제금융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금융 기구이다. IMF는 1)외환시장 안정, 2)외환제한 철폐, 3)국제수지 균형 등을 통해 국제무역 및 국제 금융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위기가 빈번해짐에 따라 금융위기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IMF는 설립이후 개발도상국이 갑작스러운 무역수지 불균형이나 금융위기를 겪을 경우 대기성 차관(Standby Credit)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별국가의 위기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데 공을 세웠다.

그러나 IMF(국제통화기금)는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애증의 대상이었다. 태생적 한계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에 그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 초 남미 외채위기 이후에는 월스트리트의 수족노릇을 하면서 금융위기를 맞은 국가들에게 무리한 정책처방을 강요해 이들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국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올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용해야 했던 초고금리와 재정적자 축소와 같은 거시안정화 정책이 대표적이었다.

그런데 IMF가 변화하고 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고하거나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겹쳐히 수용하면서 선진국만의 이해가 아닌 신흥국의 이해를 함께 대변하는 '세계의 중앙은행'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IMF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신선한(?)보고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낙수효과 이론을
반박하고
중하류층 소득개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



IMF는 지난 6월 15일 소위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 이론을 반박한 보고서(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를 발간했다. 낙수효과 이론은 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투자와 고용이 활발하게 이뤄져 경기가 부양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결국 소득양극화도 해소된다는 보수 경제학의 주장이다.

IMF는 150여 개국 데이터로 소득양극화 심화 원인을 분석한 결과, 1~4분위의 소득비중이 1%p 높아질 경우 GDP 성장률이 높아지는 반면, 5분위(소득상위 20%)의 소득비중이 1%p 증가하면 5년간 GDP 성장률이 0.08%p 하락함을 발견했다. 이는 고소득층 성장의 과실이 경제전체로 파급되는 '낙수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자들이 중하류층 소득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IMF는 선진국의 경우 숙련기술 프리미엄의 상승, 노동조합 등 노동시장 기구의 약화 등이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개도국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 심화, 기술발전, 금융에 대한 접근성 약화 등으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었다고 분석했다. IMF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잘 설계된 교육 및 헬스 케어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중하류층의 소득 점유율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선진국은 인적자본 및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도국은 정보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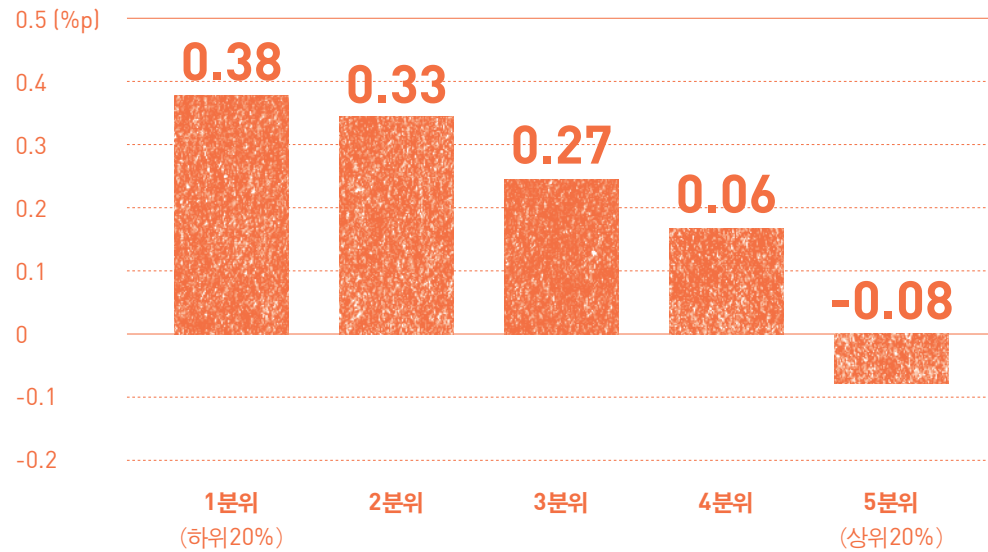
IMF의 변신은 무죄?

최근 IMF가 변화하고 있다. 선진국만의 이해가 아닌 신흥국의 이해를 함께

대변하는 '세계의 중앙은행'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IMF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신선한(?)보고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소득비중 1%p 증가시 향후 5년간 성장률 영향



• 자료: IMF

무조건적인 국가부채 감축보다 각국의 재정여력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IMF는 또한 '언제 국가부채를 감축해야 하는가?(When Should Public Debt Be Reduced?)'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나치게 재정을 긴축할 경우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여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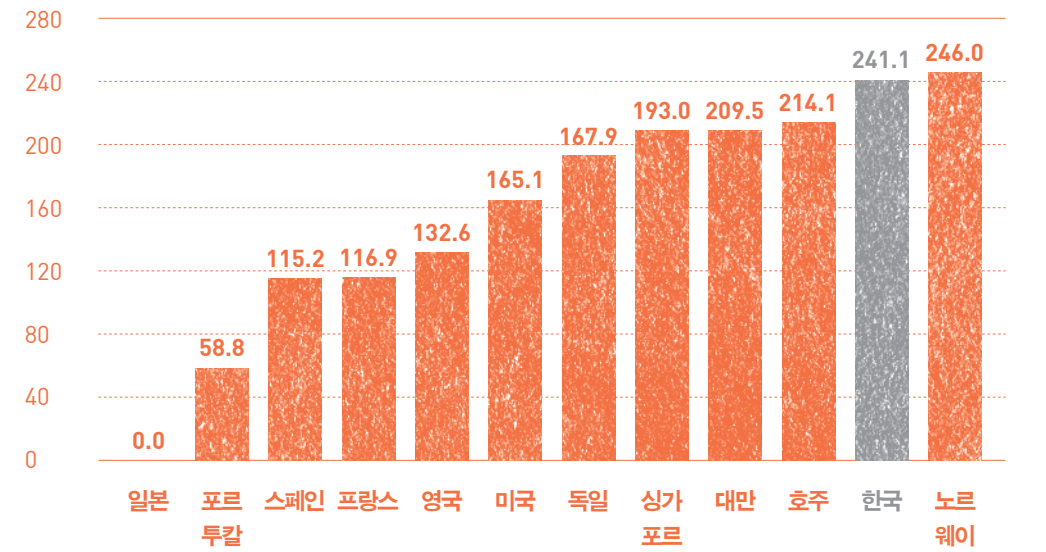
기존의 보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될 경우 미래에 큰 폭의 세금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이 둔화된다. 또한 국가부채규모가 급증해서 정부의 상환능력이 의심받을 경우 국가신인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무절제한 재정 지출을 지양하고 긴축을 통해서 재정수지를 건전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로고프와 라인하트 교수는 '부채 시대의 성장(Growth In a Time of Debt)'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정부부채 규모가 GDP의 90%를 상회할 경우 성장률이 급락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유로지역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하거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60%를 상회할 경우 해당 국가를 자동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재정규율에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이 혹독한 재정긴축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못했으며, IMF도 과도한 긴축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기침체를 장기화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게 된 것이다. IMF는 더 나아가 미국 영국 독일 등 재정여력이 있는 나라는 굳이 국가채무를 줄일 필요 없이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별 재정여력(Fiscal Space) 비교

중대위험(0-40), 위험(41-69), 주의(70-124), 안정(125)



• 주: 재정여력은 GDP 대비 한계부채비율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간의 격차 • 자료: IMF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한계노출과 신흥국의 위상강화로 IMF의 변화가 불가피

IMF는 이외에도 외환시장 개입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한다거나, 그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부채탕감이 필요하다거나, 중국 위안화 가치가 적절하다는 보고서를 내놓는 등 과거와 달리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IMF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첫째는 무한경쟁과 규제완화를 중시했던 기존의 신자유주의 노선의 한계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뚜렷해졌으며, 두 번째는 2001년 중국의 WTO가입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작년의 피케티 열풍에서 경험한 것처럼, 선진국과 신흥국을 막론하고 신자유주의의 폐해인 '소득 양극화'의 확대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국가간의 양극화, 국가 내에서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생산자와 소비자의 양극화를 완화할 필요가 높아진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IMF도 소득 양극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정치·경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신흥국은 독자적인 국제금융기구 설립에 나서고 있다. 브릭스(BRICS) 5개국이 출자한 신흥개발은행(NDB)이 지난달 21일 공식 출범했으며, 중국의 주도하에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올해 연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흥국의 독자적인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IMF의 존재감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IMF는 신흥국을 포용하는 움직임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과학적 진리는 반대자들을 납득시킴으로써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진리에 익숙한 세대가 자라남으로써 승리를 거두게 된다(막스 플랑크)'는 경구가 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새로운 진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류가 되고 사회전체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신흥국의 위상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모양이다. 새로운 진리를 추구하는 IMF의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규제완화, 의미와 영향은

도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도입됐던 그린벨트 제도가

최근 반세기만에 재평가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그린벨트 규제완화가 갖는 의미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진단해본다.

최근 규제개선 방안 발표로 반세기만에 그린벨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971년 최초로 도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도입됐던 그린벨트 제도가 반세기만에 재평가의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다. 그린벨트는 1970년대 후반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km²에 지정됐다. 이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토의 3.9%에 달하는 3,862Km²가 아직까지 그린벨트로 남아있다(2015년 6월 현재). 한편 최초 도입 이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린벨트 내 인구가 대폭 줄었을 뿐 아니라 (95만명에서 11만명) 농·축산업 경쟁력 저하와 맞물려 거주민의 생활패턴이나 인식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진행됐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 엄격한 행위제한 규제는 오랫동안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집단민원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불만과 갈등이 끊임없이 불거져 왔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정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규제 완화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제약 해소에 기여

과거 그린벨트 정책이 주로 해제대상 토지를 선정하는데 초점을 뒀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에서는 토지의 환경보전 가치에 따라 차별화된 방향과 세부대책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보전 가치가 낮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요건을 완화하고,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등 해제관련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했다. 이제껏 그린벨트 경계에 있는 소규모 토지의 경우에도 엄격한 해제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제약과 생활불편이 문제시 되었다. 그러나 이번 요건완화를 통해 소규모 단절 토지나 경계선 관통대지 등 12개 시도의 경계지역 그린벨트 약 40만m²가 해제될 것으로 보여,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계획 수립권한과 함께 중앙정부에 일원화됐던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되면서 그린벨트 해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된다. 이러한 그린벨트 해제 소요기간 단축에 따른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절감분은 연간 22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주민취락지역에서는 입지시설 허용기준 완화와 주민지원사업 확대 병행

한편 주민취락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과거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 수준으로 제한했던 그린벨트 내 시설허용 기준은 지역특산물의 가공, 판매, 체험 등으로 보다 확대됐으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 등 마을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숙박, 음식 관련 부대시설이 허용됐다. 이러한 입지시설 확대와 더불어 기존 거주기간에 따른 시설설치 기준 차등화가 폐지됐고, 취락지구 내에서도 주택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 받아온 비(非)주택시설(음식점, 주차장, 축사 등) 설치기준이나 공장 증축기준 역시 완화되었다. 향후 그린벨트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제조시설 투자확대를 비롯해, 적어도 1,3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구분	현행(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개선(지역특산물가공판매장)
설치주체	지정당시·5년 이상 생산자	기존 + 마을공동
용도	가공	가공, 판매, 교육 등
규모	200m ²	300m ² , 마을공동은 1,000m ²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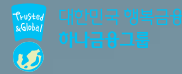
거주기간에 따른 설치기준 차등화 완화

구분	주택·근생	부설주차장	구분	주택·근생	부설주차장
지정이전 거주자	300m ²	가능	지정이전 거주자	300m ²	가능
5년 이상	230m ²	가능	일반	232m ²	가능
일반	200m ²	불가			

자료: 국토교통부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 속에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 부각

이외에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하여 훼손지 복구에 주력하고, 녹지대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를 확대하는 등 그린벨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그린벨트의 기능회복을 추구함으로써, 과거 해제에 치중한 단편적인 정책에서 탈피해 패러다임 전환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제절차 간소화와 입지기준 완화로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심화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선심성 해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소지도 남아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둬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그린벨트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것을 먼저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갑자기
필요한 돈

행복한 금융, 하나생명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최소 노후
생활비

평균수명(81세)까지 생존시 암 발생률 3명중 1명
(통계청)

뇌혈관질환 진료환자 50대 이후 82.3%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부부 월 137만원
개인 월 83만원

(국민연금연구원 제4차보고서 2014년)

돌려 받고, 보장 받고, 가족 선물 Plan이 가능한

무배당 **행복 knowhow**
[행복 미래 설계]

Top3

건강보험(보장성)

- 이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연금)이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C브렌드-150127-42 / 준법감시인 심의필 하생 2015-057호



고객센터 080-3488-7000

지구인이야기 - 오스트리아

모험, 온라인 쇼핑 즐기는 오스트리아 실버세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실버세대. 이들은 주로 모험을 즐기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웰니스 호텔, 뇌 게임, 전기자전거를 주로 이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쇼핑 즐기는 것도 능수능란하다. 배움에 대한 열정도 강해 사이버대, 두뇌 트레이닝 게임으로 배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오스트리아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월 기준으로 오스트리아의 총인구는 851만명,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156만명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50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총 326만명(전체의 38.3%)으로 고령 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 같은 고령화 현상은 2000년대 들어 가속화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미래연구소(Zukunftsinstitut)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오스트리아의 65세 노인층 인구가 총 2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50세 이상 연령층으로 확대할 경우 그 숫자는 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할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오스트리아의 50대 이상 실버 세대들은 소득이 높고 여행을 좋아하는 경향을 띤다. 특히 이들의 여행 성향은 모험과 이벤트를 선호하고 있다는 데 흥미를 끈다. 주로 오스트리아의 실버 세대들은 풍부한 경험과 모험을 즐길 수 있다면 기꺼이 도전한다. 예를 들어 수도 빈에 있는 여행사 클럽(KLUG)에서 50대 이상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을 들여다보면, 페르시아의 황무지를 거쳐 빙산과 그린란드의 사파리로 간 후 이탈리아로 가서는 맛집 투어를 하고, 버스를 타고 오스트리아로 돌아와 유랑 여행을 하는 힘든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모험을
즐길 줄 아는 실버들



웰니스 호텔, 뇌 게임,
전기자전거 즐긴다

사실 실버세대들에게 '건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건강은 단순히 의학적 도움뿐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개념. 오스트리아 실버 세대들도 웰빙에 대해 관심이 높다. 2000년대 들어 특히 웰니스 호텔들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실버세대들은 의료적 보살핌과 휴양 등의 관련 서비스 및 시설을 갖춘 이러한 호텔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신체적인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닌텐도의 Wii 같은 오락 기구들을 상당히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통 수단으로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오스트리아 교통·혁신·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내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74%가 45세 이상 연령층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산악자전거에서 시내주행용까지 이들 고령층들이 즐겨 찾는 전기자전거의 종류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추세다.

인터넷,
온라인쇼핑 즐긴다

오스트리아 실버 세대들은 새로운 기술 및 뉴 미디어에 대한 선호도도 꽤 높다. 대표적인 것이 고령층의 인터넷 사용 증가를 꼽을 수 있다. 2003년에는 55세~74세 연령층의 13%만이 인터넷을 사용했던 반면, 2013년도에는 오스트리아 장년층 중 55세에서 64세의 66%가 인터넷을 사용했고, 65세에서 74세 인 사람들의 35%가 인터넷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숫자로 보면 약 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숫자이다.

또 이들은 온라인 쇼핑도 즐긴다. 2013년도에 오스트리아의 55세 이상 64세 이하 사람들 중 32%가 인터넷으로 필요한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 5년 사이에 10%나 증가한 수치이다. 구매 품목과 관련해서는, 55세 이상 74세 이하 온라인 구매자의 절반 정도가 전자책(e-book)이나 이러닝(e-learning) 관련 제품들을 구매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55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대 구매자의 36%가 인터넷으로 전자기기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문 참고자료: KOTRA 오스트리아 빈 무역관 자료 종합



사이버대,
두뇌 트레이닝 게임으로
배움 유지

오스트리아 실버세대들은 유럽 내에서도 평생 교육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로스타트(Eurostat) 통계에 따르면 55세~64세 연령층의 93%가 배우는 활동이면 어디든지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오스트리아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0세 이상 연령층의 직업 관련 전문 재교육 부문이 9.5%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사이버 대학 등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닌텐도에서 내놓은 두뇌 트레이닝 게임 '두뇌 조깅', 스토쿠 게임, 낱말놀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게임들은 재미있을 뿐 아니라 기억력 향상 및 치매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마라톤, '러너스 하이'의 쾌감 맛보기!

달리면서 경험한 '러너스하이'로 삶의 의미, 살아갈 에너지를 되찾는다! 마라톤에서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고 싶는가. 바로 결심하라, 그리고 매일 달려라!

멈추는 순간까지 들숨과 날숨으로 자기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페이스,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여기서 해야 하는 건 딱 두 가지. 끝내거나 달리거나.

마라톤에서 '러너스하이'의 쾌감을 맛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 말이다.

마라톤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확인하고 극복하는 자기와의 싸움.

42.195km를 고독을 씹으며 그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 '왜 내가 사서 고생을 하나, 다음부터는 마라톤을 하지 말아야 겠다'며 별별 생각이 다 들다가도 어느 순간엔 아무 생각 없는 무아지경에 빠지게 된다. 오로지 자신의 몸에만 집중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탄생각을 했다가는 후들거리는 발이 빠끗할 수도 있다. 그저 지금 1초, 다음 1초,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여기에만 계속해서 집중해야만 한다. 그렇다 달리다보면 어느새 '러너스하이'에 도달하게 된다. 그 다음부터는 내 몸은 깃털처럼 가벼운 존재가 된다.

01.

규칙적으로 달려라.

'매일' '꾸준히'의 마법을 활용하라. 1분간 달리고 3분간 걸어라. 그리고 총 20분간 반복하라. 이렇게 8주 동안 꾸준히 반복하라. 그러면 5분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하루에 60분으로 시간을 늘리고 7주 동안 꾸준히 지속하라.

02.

체중을 감량하라.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쓸데없는 지방을 빼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균형잡힌 식단표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03.

달려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라.

마라톤을 향한 처음의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 나눔'에 참여하자. 온라인, 주변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효과적인 방법을 나누다보면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04.

친구를 찾아라.

소셜 커뮤니티를 통해 마라토너들과 교류하라. 온라인으로 성에 차지 않는다면 오프라인 동호회에 가입해 함께 달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05.

5Km경기에 출전하라.

작은 만족감이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실력은 훌쩍 성장하게 되는 법. 짧은 경주에 도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초보자에게 적합한 짧고 평탄한 직선 코스를 택하라.

06.

첫 하프 마라톤에 도전하라

5km에 도전했다면 다음은 하프 마라톤이다. 적어도 3개월 이내에 하프 마라톤 경주에 등록하라. 경주 일정을 알아보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경주를 선택하라.

Trustee & Global 하나금융그룹 New Vision!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

행복한 은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행복 knowhow

행복 미래 설계

하나금융그룹의 은퇴설계 통합 솔루션 행복 knowhow

통합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 어디서나 준비된 상품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

전문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 은퇴설계 전용 인프라 구축
- 일대일 맞춤 컨설팅 전문인력 제도 운영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든든하게


- 은퇴 전용 상품 운영
- 비재무 설계 서비스 통합제공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증권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하나 S&카드사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798호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12층 | TEL. 02-2002-2220 | FAX. 02-2002-2610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카드